

울산, 석유상품거래소 개설 추진

동북아오일허브 인프라 구축 목적 ... 등유·경유·병커C유 거래 검토

울산항 일대에 건설하는 동북아 오일허브에 정부가 석유상품 거래소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2월27일 국회에서 개최한 동북아 오일허브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석유상품 거래소 개설 추진에 대해 밝혔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정승일 정책관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업용 탱크터미널 운영과 석유상품거래소 개설을 정부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0만톤급 유조선의 접안이 절실하다”며 “국토해양부, 석유공사 등과 대형선박 입출항을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대형 유조선의 입항과 함께 원유 운반 뿐만 아니라 등유, 경유, 병커C유 등 경제성 높은 석유제품 거래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 오일허브의 물동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탱크터미널의 차질 없는 건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현 의원, 정승일 정책관, 한국석유공사 신강현 오일허브사업단장, 울산항만공사 김주만 물류기획실장, 울산시 이상찬 산업진흥과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8>